

# 작가, 주변인으로 수도사처럼 작품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

## 작가가 본 한국 작가의 현실과 과제

글\_현길언(소설가 <본질과현상> 발행인)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소설의 등장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소설은 그만큼 그 시대를 다양한 방법으로 정직하게 드러낸다. 그런데 작가가 그 시대를 치열하고 정직하게 인식하지 않았다면, 그 소설은 당대의 표피적인 사회현상을 드러내는 수준에 머물러 소설 고유의 몫을 훼손시킬 우려도 없지 않다. 그 예를 우리 사회가 이념에 경도되었던 어느 한때의 소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당시 최고의 선(善)이었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우리 소설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래서 작가들 가운데는 그것을 상품화하여 돈과 명예를 얻기도 했다. 그런데 그 작품을 지금 읽어보면 육화되지 못한 허약한 이념 추종자의 생경한 모습이 정직하게 드러난다. 그것을 통해 그 당시 우리 사회의 지적 풍토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설의 정직성은 끔찍스러운 정도이다. 사실 그 시대에는 이념의 마술에 홀려서 작가도 출판인과 문학지(誌)도 더하여 비평가들과 언론매체까지 소란스럽게 다투어 떠들었다.

20세기 끝남과 동시에 집단적 이데올로기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대신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등장하였는데,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작가들은 집단성에 휩쓸리던 지난 시대와는 달리 자신이 확정한 '자신의 진실'만을 믿고 그것을 써내고 있다.

이 시대의 작가들은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충실하게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주제나 양식이나 방법에서 있어서 개별성이 돋보이기 때문에 어쩌면 독자들을 당혹하게 할 수도 있다. 그들이 믿는 것은 감각이나 감성으로 확인한 현실이라는 점에서 극도로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그 주체의식이 확실한, 자기가 확인한 진실과 가치를 숭상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지난 시대의 이데올로기는 '나'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사회적인 상황으로부터 빚처럼 뒤집어쓴 억압적인 것들도 있었다. 이제 그 억압의 고통에서 헤어나온 세대들은 나

는 좀더 자유스러움을 갈구하면서 내 가슴을 울리는 것, 즐겁고 편안한 것, 공공의 고통이 아닌 내가 아프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보다 중요했다. 사랑과 가족, 돈과 일터, 그리고 가치와 거리를 두면서도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감성이 라는 것이었다. 그것들은 불확실한 이념을 붙드는 것처럼 무거운 신념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것들은 나를 에워싸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었고, 직접 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실이었다. 그것을 쓰는 데는 철저한 자기 리얼리티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사소설적 양식은 필연적이었다.

'나의 상처와 아픔'을 써내었던 여성 작가들 시대도 오래 가지 못한다. 그렇게 '상처와 아픔'에 집착하는 것부터가 이미 고전적이라는 것이다. 상처와 아픔을 생각할 때만해도 주체와 타자의 구별이 분명했는데 이제는 그 관계성이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혹은 경계 허물기 또는 넘나들기라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세계에 대한 혼란된 자아의식의 표출이 아닐까 생각한다. 왜냐면 이 사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했기 때문이다. 어떤 법학교수의 말을 빌면, 가장 보수적인 법조계에서도, 동성동반을 법률적으로 인정한다든지, 성 전환자의 성을 인정하는 문제,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의 인권의 문제를 수용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은 혁명적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곁에 드러나지 않는 기존 질서의 파탄과 그 변이 현상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다. 겉으로는 태연하지만 내면은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질서와 관습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당황한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적으로도 나타난다.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달과 윤리의식의 변천,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새로운 사건, 모든 부분에 그것을 지탱하는 중심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더구나 생존과 관계있는 실업의 문제, 이 문제를 책임지지 않는 정부... 과거에는 부권의 추락했을 때에만도 문제는 자아로 돌

## 현길언은

197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아버지〉가 당선되면서 문단에 나왔다. 제5회 신동엽창작기금, 제5회 만해문학상, 제2회 오영수문학상 등을 받았으며 민족문학 작가회의 이사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아왔는데, 이제는 자아까지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가.

이런 때일수록, 다양한 양식의 소설들이 진정으로 자아와 세계에 대한 치열성에서 출발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직성이 얼마나 작가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는지, 자성해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서 이 다양하고 다소 낯선 소설 양식에 대한 신뢰도가 결정될 것이다.

최근의 소설을 읽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일상적인 삶의 파편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물론 표피는 다르겠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허무성, 일탈성, 기괴성, 그리고 유머와 풍자성 돋보이는 새로운 다양한 양식과 방법이 작위적이거나, 요즘 유행어를 따르며 ‘글썽’의 수준에 머물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즉 곁에 들어난 그 고도의 기괴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허무이든 기괴이든 타협이든 야유이든 간에 세계에 대한 작가의 치열한 탐구의 결과로 얻어진 것인가 하는 의아심 때문일 것이다.

소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주변성을 본질적 특징으로 한다. 소설은 어차피 그것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탐구의 한 양식일 수밖에 없다. 이 점은 고전적인 개념만이 아니다. 소설은 자아와 세계의 주변적 진실 탐구를 운명적으로 짊어지고 간다. 최초의 소설 양식을 유학자들이 도청도설(道聽塗說)이라고 야유한 것도 그 점 때문이다. 쓸 데 없으나 재미있고, 뭔가 세상의 진실을 드러내는 듯하기에 사람들은 그것은 버릴 수 없었다. ‘유용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것’ 이기에 그것은 결코 대설(大說)이 될 수 없었다. 자아와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다양한 양식으로 나타난다. 그 중에 하나가 학문이다. 학문은 인간과 세계 현상의 중심부적인 것만을 탐색한다. 즉 통계 논리에 근거한다. 아무리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통계적 의미를 얻지 못할 때에 학문적 진실은 될 수 없다.

그런데 소설은 그렇지 않다. 소설은 오히려 중심부에서 일탈된 진실을 찾아 나선다. 그러기에 일상적인 눈으로 작가의 작업을 본다면 미친 괴짜이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로 세

상을 살고, 보고,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치열성이다. 작가는 자아와 세계에 대한 지극한 애정과 관심이 없이는 글을 쓸 수 없다. 그리고 정직성이 요청된다. 자기가 확인한 진실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정직해야 한다. 자아에 도취되어서도 안 된다. 그렇게 쓴 작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힘을 갖게 된다. 한때 독자의 인기를 얻었던 작품 중에서 이념에 경도된 작품을 지금 읽었을 때 그 씁쓸한 뒷맛은 모두 이 치열성과 정직성이 결여된 채 어떤 의도를 충족하기 위해 기교를 부려서 썼기 때문이다. 역사를 이념을 보통 독자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그것에 기교를 더하여 작품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작가들에 의하여 이루어낸 소설적 성과가 자아와 세계에 대한 치열성을 갖고 정직하게 현실을 탐색한 결과라면, 지금이 그 기발함과 이채로움이 더욱 돋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작품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작가의 세계 탐구 양식으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문학이 추구하는 자아와 세계는 무한한 층위로 되어 있다. 더구나 디지털시대라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그러한 복잡다단한 현실을 추구하는 방법에는 왕도가 없다. 젊은 작가들이 추구하는 것도 그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다양한 연령층의 작가들이 함께 이 시대를 함께 탐색하고 있다. 평단이나 문학매체들도 이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젊음의 문학이 신선함처럼 늙음의 문학의 깊고 순수함도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경계해야 할 것은 새로운 집단적 이데올로기가 문학을 지배하는 일이다. 그럴듯한 수사로 이념의 문학을 강화할 때 문학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또 상업주의에 대한 작가의 경계심도 필요하다. 이것은 디지털시대에 더 강력하게 나타난 적이기에 이것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문제에 이르면 작가는 외롭다. 비로소 작가는 주변인으로 21세기 수도사처럼 외롭게 작품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